

타운뉴스 종교면은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기관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귀 기관에서 홍보하고 싶은 행사나 기사거리가 있으면 이메일 (info@townnewsusa.com) 또는 전화 (562-404-0027) 로 알려주세요.

종교



어떤 것이 '참나'인가?

재난·난민 위한 자선콘서트 미주복음방송

미주복음방송(사장 이영선 목사)이 재난, 난민을 위해 개최하는 자선 콘서트 '2024 나눔On 희망 On' 을 개최한다. 이 콘서트는 2020년부터 이웃과 세상을 섬기는 나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열리고 있으며, 올해는 튀르키예, 우크라이나, 아이티 등 세 국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과, 지역사회 자선단체들을 돕기 위해 진행된다.

올해 이 행사는 특별히 '나눔On콘서트' 와 '나눔On생방송' 등 2가지 프로젝트로 각각 2월과 4월에 걸쳐 진행된다.

나눔On콘서트 개최 일시와 장소는 다음과 같다.
▶2월 9일(금) 오후 7시, 남가주동신교회(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2월 10일(토) 오후 6시, LA주님의영광교회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2월 11일(일) 오후 5시, 어바인 베델교회(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이번 '나눔On콘서트' 는 작곡가 겸 예배 인도자 손경민 목사와 The은혜 워십팀(찬양사역자 이윤화, 찬양사역자 주리, 피아노 김정희, 색소폰 이기명이 함께한다. 후원 티켓은 20달러이며 미주복음방송 누리집(홈페이지, www.kgbc.com), 전화 및 시중 한인 서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문의 및 티켓 구입: (714) 484-1190

목회자 세미나 투산영락장로교회

교회를 세우고 부흥시키는 목회자 세미나가 3월 12일(화)부터 15일(금)까지 애리조나 투산영락장로교회(담임목사 장충렬, 6570 N. Thomysdale Rd, Tucson, AZ 85741)에서 열린다.

세미나 참석 인원은 60명(30가정)으로 제한하며 선착순 모집한다. 신청 기한은 2월 25일(일)이다.

참가비는 무료이다. 접수비는 100불이며 행사 종료 후 환불된다.

▶문의: (520) 390-4447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찬란한 광명이 어둠을 삼켜버리듯 사바세계에 가득한 아집과 독선, 갈등과 투쟁의 어둠이 사라지고 정의와 평등, 자유와 평화의 찬란하여 모든 인류가 행복하게 살기를 기원합니다.

과학의 발전과 물질의 풍요는 역설적으로 극심한 경쟁과 급변하는 환경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극심한 경쟁과 환경의 공해는 이기적 탐욕과 물질 추구의 전도된 가치관으로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앞으로만 치달려온 결과입니다.

새해에는 마음의 눈을 뜨고 인간 본성을 회복합시다.

마음의 눈을 뜨고 실상을 바로 보면 사람마다 진리의 주인공입니다. 우리의 본마음은 허공보다 넓고 바다보다 깊고 태양보다 밝습니다. 이 마음을 닦아 본마음을 깨달으면 큰 지혜와 큰 자비가 구족하고 자유와 평화가 충만한 행복이 그 속에 있습니다. 나고 날 적마다 참다운 행복과 안락을 누리고자 한다면, 우리 모두 일상생활 속에서,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오매 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또 의심하여 진정한 참나를 깨달아야 합니다.

중국의 송나라시대에 '소동파' 는 당나라·송나라 8대 문장가에 속한 대학자였는데, 어느 날 세상의 문장과 재주, 식견이 별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이후로는 참선 수행에 몰두했습니다. 하루는 노산홍룡사에 상충 선사라는 안목이 고준한 선지식이 계신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선사께 예를 올리고 말하였습니다.

"선사님의 법문을 들으러 왔습니다."

이에 상충 선사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어째서 유정설법(有情說



法)만 들으려 하고 무정설법(無情說法)은 들으려 하지 않는고?"

소동파는 선사의 물음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생각과 정이 있는 유정물뿐만 아니라, 산이나 바위나 나무 같은 무정물도 설법을 한다?' 는 충격적인 말씀에 의심이 깊게 사무치게 되었는데, 친견하고 일어나 말을 타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온몸과 온마음이 이 의심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말 등에 앉아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에 소동파는 한 생각에 깊이 빠져서 문득 의심삼매에 든 것입니다.

'어떻게 무정물이 진리를 설할 수 있는가? 왜 나는 그것을 듣지 못하는가?' 그렇게 수십 리 먼 길을 말을 타고 돌아가다가 산모퉁이를 도는 순간, 산골짜기에서 짙동 같은 폭포수가 떨어지는 소리에 크게 깨달아 마음의 고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계송을 지었습니다.

계성자시광장설 (溪聲自是廣長舌/ 산색비청정신 (山色豈非淸淨身/ 야래팔만사천계 (夜來八萬四千偈/ 타일여허거사인 (他日如何舉似人)

산골짜기에 흐르는 물소리가 팔만

사천 지혜의 말씀인데/ 산색이 어찌 부처님의 청정한 몸이 아니겠는가/ 밤이 음에 팔만사천 법문을/ 다른 날에 어떻게 사람에게 들어서 보일꼬. 이후로 소동파는 남은 생을 마음의 고향에서 지혜와 자비로 안락한 삶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천지가 나와 더불어 한 근원이요, 만물이 나와 더불어 한 몸입니다. 산하대지와 산천초목이 제각각 진리를 표현하고 그 존재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의 조화 속에 주위 사람과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상호관계 속에 서로를 인정하고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상생과 공존 속에 원숙한 사회가 이루어지고 진정한 행복이 성취됩니다.

평화와 자유는 반목과 대립으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상호존중과 자비연민이 실현되어야 할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새해에는 자기를 성찰하고 타인에게는 자비연민을 베풀어 원용화합의 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진제 스님-

한남체인 내 코웨이 & 실드라이프

Covid-19 소독제품
여러종류 마스크 판매

정수기 / 비데 / 공기청정기 / 연수기
실드라이프 전기매트, 전기장판

정수기 판매 및 렌탈

714.523.9588 / 714.471.1843 5301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1 한남체인 내